

전주시, 학교주변 안전지대 조성

올해 안 초등학교 37곳 어린이보호구역에 눈에 띄는 노란신호등 설치키로 신규 어린이보호구역 편입 등 7곳에도 통합표지판·안전펜스 등 들어서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과 노란신호등이 확대, 설치된다. 전주시는 올해 안에 초등학교 37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3억8500만원을 들여 노란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노란신호등은 기존의 검은색 등면을 눈에 띄는 노란색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임을 알려 저속운전을 유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교통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지난 5월까지 14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했으며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다는 평가에 따라 추경예산 확보로 23곳에 추가 설치키로 했다. 추가로 설치될 초등학교는 금암초,

금평초, 기린초, 전주남초, 동북초, 만성초, 문정초, 문학초, 복일초, 서문초, 서신초, 송천초, 신동초, 인후초, 장동초, 조촌초, 중산초, 전주초, 평화초, 풍남초, 효림초, 효문초, 화정초 등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편입된 관아어린이집, 온빛초등학교, 연세유아학교, 개아마을어린이집, 에덴어린이

집, 하나유치원, 동신초등학교 등 7개소에 2억4600만원을 투입해 통합표지판, 어린이안전펜스, 과속방지턱, 시인성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파손되거나 노후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 유지관리공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중에 73개 초등학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뒤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겁겨 타버린 나무바닥 지속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8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신동의 한 미용실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건이 발생해 소방관계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

“설대위 선교사의 뜻 이어받겠습니다”

예수병원 암센터 30병동 개소

예수병원 설대위기념 암센터 30병동이 8일 김철승 병원장, 김갑태 암센터 센터장 등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병상 가동에 들어갔다. 설대위기념 암센터 3층에 위치한 30병동은 음압병동 1인실 5실과 2인실 2실, 4인실 8실 등 넓고 쾌적한 시설을 갖춘 41개 병상으로 이뤄졌다.



예수병원 설대위기념 암센터 30병동이 8일 김철승 병원장, 김갑태 암센터 센터장 등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특히, 격리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병동인 음압 병동은 1인실 5실에 5개 병상을 갖추고 결핵이나 홍역, 수두 등 감염성 질환 환자의 입원 치료를 전담한다. 김철승 병원장은 “1954년에 예수병원에 와서 36년간 헌신 봉사한 설대위 전 병원장을 기념하는 설대위기념 암센터에 첨단 시설의 30병동 개소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설대위 선교사님이 뜻을 이어

받아 환자중심의 업그레이드 된 암 치료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혔다. 아울러, 김갑태 암센터장은 “환자 경험 중심의 환자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입원 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에게 소망을 주는 30병동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태 기자

뇌사판정 받은 20대 여성 장기기증 통해 7명에 새 생명

뇌사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불의의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판정을 받은 최모(여, 20대) 씨가 장기를 기증했다고 8일 밝혔다. 최모 씨의 가족은 “평소 주위분들에게 도움 주기를 좋아했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고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모 씨가 기증한 심장, 폐장, 췌장, 간장(분할 2개), 신장(2개)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선정한 7명의 환자에게 이식 수술이 이뤄졌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이석교수는 “이렇게 7명이나 되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경우이며, 한없는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중환자들을 위해 송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가족 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차량 번호인식시스템 최신식으로 바뀌야

내달 1일부터 신규 등록 승용차 번호 8자리로 변경 전주시, 이달 말까지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완료 독려

신규 등록 승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해 전주시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신규 등록 승용차량의 등록번호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등록되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 시설물 전수조사와 방문, 홍보물 배포,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하기 위해 독려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의 진·출입할 때 번호 인식이 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쇼핑몰 등 민간시설물의 업데이트에 집중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및 사전 테스트를 완료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업데이트를 위해 민간 부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도입하려던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은 번호판의 개발, 공급상의 문제로 2020년 7월로 시행이 연기됐으며, 페인트식 번호판만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부터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초록정원사 과정’

오늘부터 교육생 모집

전주시, 시민 정원사 양성 주중·주말반 30명씩 운영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전주시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정원사를 양성키로 했다. 시는 전주를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숲 정원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9월부터 16일까지 8일간 ‘초록정원사 과정’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생 접수는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 오는 22일 합격자 발표 후 28일 개강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는 숲 정원학교를 통해 정원문화에 대한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초록정원사 과정과 찾아가는 숲 정원학교를 개설한다.

우선, 초록정원사 과정은 주중반과 주말반 각각 30명씩 운영할 예정이며, 교육생에게는 식물관리와 정원조성에 대한 이론, 실습과정 등을 통해 기본 지식과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찾아가는 숲 정원학교의 경우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관, 마을공동체 등을 직접 찾아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281-2438) 및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251-3947)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여름피서 절정기, 교통안전 총력 대응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정진영)는 여름 피서 절정 기간 중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9지구대에 따르면 예년과 달리 일박의 관계 악화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동해안권이나 남해안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려는 수요가 증가한다. 이에,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 또한 증가되며 피서기간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연장된 광복절 이후까지도 예상된다. 9지구대는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와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특성에 따른 취약요소 세가지를 선정했다. 또한, 피서 절정기인 지난 2일부터는 ‘공사장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현장근무자 교육, 주요 피서지(지리산, 무주 덕유산) 진, 출입로 전화식 안전띠 착용 홍보했다. 더불어, ‘음주운전 단속, 졸음운전시 간대 싸이렌 알람순찰’ 등 강화업무를 중점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18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제9지구대장은 “휴가철 다소 느슨해진 심리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할 경우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운전은 교통안전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8월 주민세 53억 고지

전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본 주민세 27만건, 53억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워터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도 납부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방치 자전거·보관대 대대적 정비 추진

전주시, 이달 중 주요 도로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대상 자전거 이용불편사항 신속 정비로 이용자 불편 최소화

전주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위해 주요도로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점검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보관대 200개소 401조에 대한 파손 및 노후상태, 방치자전거 현황 등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장기 방치된 자전거는 수거 조치해 보관대 공간을 확보하고 파손된 자전거보관대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마쳐 자전거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상반기에도 무단방

치자전거 111대, 자전거보관대 25조를 정비한 바 있으며,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보관대 시설을 늘려나가는 한편,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자전거 시범학교에도 이용수요에 따라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장병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치자전거 처리 및 보관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하여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배정방식 개선

전주시실공단, 현행 선착순 무기한에서 6개월 단위 추첨으로

전주시실공단(이사장 전성환)이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단은 현행 선착순 무기한 사용방식의 월정기권 배정방식을 6개월 단위 추첨방식으로 개선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 순서대로 충원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정기주차권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이용자가 주차지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하지 않는 이상 월정기권을 무기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400여명의 대기자가 평균 1~2년, 많게는 3년 간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주차장에서는 특정인이 6~7년간 독점적으로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단은 총 20개 유료주차장 가운데 옹근리, 한옥마을, 덕진광장 등 이용수

요가 높아 정기주차권 도입이 불가한 6개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주차장을 대상으로 정기주차권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주차장별 특성에 따라 전체 주차면의 10~50%를 정기주차면으로 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550여명이 정기주차권을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향후 이용추세를 분석해 정기주차면 배정규모를 30~50%까지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 주차운영부 관계자는 “월정기주차권 배정방식의 개선으로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간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 참여로 월정기권 개선 방식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전주시로부터 20개 유료주차장을 비롯해 59개 무료주차장 등 총 79개의 공영주차장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